

만민 중에서 주께 드리는 감사

시편 57:1-11, 로마서 15:1-13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전도자의 감사 고백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 (욥, 바울, 다윗)

1.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 : 재앙을 벗어나는 피난처(1),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심(2), 인자와 진리로 원수에게서 구원하심(3)
2. 감사하는 자가 나뉘야 할 것 : 마음을 확정(7), 영혼을 깨우고 감사실천(8), 만민에게 여호와를 선포할 만큼 감사(9-11)

결론 : 감사를 위한 실천 - 한해동안 받은 은혜를 정리하고, 선교를 위해 어떻게 감사하며 헌신할 것인지를 정리해 보자.

오늘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의 날이다. 수 년 동안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켰다. 그러다가 지난 번 당회에서, 한국 교회와 같이 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11월 셋째 주에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다.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한다.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순서가 많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감사의 제목과 방향을 나누려고 한다.

전도자의 감사 고백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1:21에서 그렇게 고백했다. 위대한 고백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감옥에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했다. 그렇게 감사의 생을 살았다. 이것은 참으로 능력 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오늘 구약 본문의 다윗도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있다. 흑암 세력은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항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이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자 한다.

1. 여호와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

첫 번째다. 여호와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보자.

(1) 1절에, 내 영혼이 재앙을 벗어나도록 피할 수 있는 참된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다던 사울 임금이 귀신들려서, 군대를 이끌고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굴로 들어갔다. 그런데 군대를 거느린 사울이 그 굴로 들어오는 것이다. 절체절명의 순간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왕과 다윗이 숨어 있는 공간 사이에 하나님이 자일을 쳐 버리셨는지, 그 몇 발자국을 더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도대체 어디 있는거지?’ 하면서 화를 내다가 잠들어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다윗이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1절이다. 요16:33은 말씀한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롬8:37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음을 말씀하

며 우리가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바울은 외치고 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어떤 재앙과 어떤 저주, 창세기 3장의 어떤 문체에 주 안에 있는 우리와 관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체?” “끝!” “예수는?” “그리스도!” 잊지 마셔야 한다.

(2)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자녀 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푸시는 분이시다. 롬8:32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어떤 것을 아끼시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릇을 준비하여, 주신 바 그 은총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다. 나는 어찌다가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누리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너무 감사하다. 이번에 (유럽의 기독교 위성방송) Dieu TV의 요하네스 사장이 한국에 왔는데, 정은주 목사님과 대화를 많이 한 모양이다. 앞에서 통역을 했겠지. “나는 전 세계에 거의 다 가 봤는데, 또 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많은 교회를 가 봤는데,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복음 누리는 행복한 목사님을 못 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사는 한 주간의 모습을 찍어서 세계인에게 다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정목사님에게, 잘 보여주라고 했다. 율법에 놀리지 말고,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복음 체질이 되고, 복음에 뿌리내리고, 복음을 각인시켜서, 정말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한다. 이상배 목사님이 우리교회 복음소식 영상을 본 모양이다. 우리 여명과 우리 손녀를 본 모양이다.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3) 아주 중요한 감사의 배경이 3절에 나온다. 하나님은 그의 인자와 진리로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요일3:8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원수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원수의 세력을 꺾고 승리할 힘과 은혜를 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란다. 마12:29에 말하기를,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믿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고 했다.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고 계계를 일삼는다.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만 하면, 6절의 말씀대로, 그 함정과 계계가 썩 다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힘을 누리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한다.

이외에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다. 금년에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과일이 잘 익었는지 모른다. 벼들도 오곡백과도 많이 추수했다. 김장도 더 싸졌다고 한다. 우리끼리 만나면 이야기를 한다. 우리나라가 잘 하는 게 뭐가 있다. 정치를 잘 하나, 경제를 잘 하나. 그런데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대한민국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다. 정말이다. 내가 페루에 가 보고 깜짝 놀랐다. ‘야, 저주받은 땅이라는 게 바로 이런 땅이구나.’ 페루의 수도 리마 바로 옆 땅이다. 산이 있는데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다. 저 높은 산인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없이 죽어 있다. 화산이 터져서 죽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런 땅도 있었다. 나는 처음 봤다. 중국이 G2로 세계를 제패한다고 하는데, 북경 가 보라. 마스크를 안 쓰면 돌아다닐 수가 없다. 얼마나 매연이 심하고 오염이 심한지 모른다.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매연을 막으려고 차량을 못 다니게 하고 오만 짓을 다 했더니, 또 인구는 얼마나 많은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야단이다.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황시는 좀 맞지만, 그래도 우리 땅이 얼마나 금수강산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란다.

2. 감사하는 자가 나누어야 할 것

(1)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7절부터 나온다.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 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제일 먼저 할 것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일이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기 바란다. 결심하여 하나님께 영혼을 집중 시키시기 바란다. 이제 그만 불평하라. 그만 짜증을 내라. 그만 부정적으로 보라. 다른 사람 내쫓지 마라. 당신의 말 한 마디가 화살이 되어 당신을 죽인다. 칭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얼마나 고마운가. 할머니들에게 이야기했지 않나? “아이고,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나는 천국인 줄 알았어.” 그렇게 칭찬하는 말 몇 마디만 해 주면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짜장면이라도 한 번씩 사 주면, 대단한 열심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칭찬하라. 자꾸 시비하고 다투서 낙심시키지 마라. 감사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감사하며 살 거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거야. 평생 다른 짓을 하지 않을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하다. 상처받은 부부들을 치유하는데, 감사할 것을 40가지 써 보라고 시켰다고 한다. “무슨 40가지? 두 개도 없다.” 이러면서 화 내던 사람들이, 조금씩 써 보더니 100가지가 더 되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더라고 한다.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2) 8절을 보라. “내 영광이 깎지어다. 비파야, 수금야, 깎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혼을 깨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깨워야 한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호와를 자신에게 선포하고 찬송하시기 바란다. “내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도다. 나는 그 주님의 자녀로다.”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라는 말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입술로 그것을 실제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고백할 때, 그 감사 앞에 모든 흑암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불평, 불만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원수가 찾아와서 유혹한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 앞에서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다.

(3) 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 세계에 설명할 만큼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다. 내가 CD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이올린 연주곡이다.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른다. 연주자가 하는 말이, “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최근에 악기를 배우는 분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너무 좋다. 교우들이 격려를 좀 해 주면 좋겠다. 너무 잘 한 것이다.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필리핀에서도 이런 것을 다 하더라. 잘 못 하면 어떨까. 좀 실수하면 어떨까. 자기 기능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나. 그런데 대한민국 강남에 사는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못 했나 싶다. 이제 이분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나이든 분들은 후배들을 격려하고, 후배들은 어른들을 존경하며, 윈리스되어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정말 제대로 감사하면, 이것이 전도와 연결되고 선교와 연결된다. 그래서 찬송을 회복하다가, 전 세계에 여호와를 설명할 수 있는 10, 11절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① 주의 크신 인자가 하늘에 미침을 찬송해야 되겠다. 요3:16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5:8에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해 보이셨다고 했다. 이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함이 실로 마땅치 않다. 나는 지나가다가 성도들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면 그렇게 아름답을 수가 없다. 합창소리도 좋지만 독창 소리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름을 찬송하라고 했다. 진리가 뭐가? 요14:6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누구든지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요8:32에 말씀한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아파 정은주 목사님이 요하네스 사장님께 보여줬던 모양이다. 롬8:2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②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11절에, “하나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신약 본문을 읽었다.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빌2:9-11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아지고, 온 세계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고 찬송될 만큼, 선교를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찬송을 회복하는 하루,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한다.

온 세계가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찬송하자. 감사하는 한 주간을 살자. 그래서 두 가지를 실천해 보라. 첫째는,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정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라. 나는 이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많은 은혜가 떠올랐다.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큰 일이 없었다. 그런 사고 당한 모습을 지켜보면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멸망의 삶이 우리 교인들을 넘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지금 천사를 보내서 지켜달라고 기도한다.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주신, 받은바 은혜들을 정리하고 헤아려 보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러 보시기를 바란다. 감사절 예배 끝났다고 끝내지 말고,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어떤 감사로 헌신할 것 인지를 기도하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란다. 임직자들과 조직자들은, 내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는지 생각하고,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게 개혁이다. 초대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란다. 그 감사를 가지고, 지역의 흑암을 쫓고, 전 세계에 여호와를 나타내는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헤아리지 못하니, 한 주간 내내 생각하며 헤아려 보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우리 입에서 감사가 폭발하게 하옵소서. 그 감사를 누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모든 문체가 끝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